

다이쇼인 절: 불상 부동명왕 좌상

부동명왕(산스크리트어로 아찰라나타)은 오대명왕(불교에서 말하는 다섯 지혜의 왕) 중 한 명으로 진언종의 중심이 되는 부처입니다. 신앙심이 두터운 자를 수호하고, 부모와 같은 깊은 애정으로 신자를 이끈다고 합니다. 보통 성난 표정으로 오른 손에는 검을, 왼손에는 오랏줄을 휘두르면서 모든 악귀와 적을 물리쳐 불교 신자들을 수호하려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대부분의 부동명왕상은 반석(바닥 돌) 위에서 불꽃을 등에 지고 있는데, 이는 부동명왕의 강인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부동(不動)은 한자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 부동명왕의 기원은 초기의 인도 불교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일본에서는 특히 존경받는 존재로서 여러 사원에서 본존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는 다이쇼인 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다이쇼인 절의 부동명왕상은 10 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나의 편백나무로 조각된 약 1m 높이의 부동명왕상은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눈을 부릅뜨고 아랫입술을 깨물고 있습니다. 부동명왕이 손에 든 길고 곧은 검은, 복원을 통해 본연의 빛을 되찾아 화려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타오르는 듯한 주황빛 색깔은 새롭게 칠해졌지만, 등 뒤의 불꽃 모양과 토대는 당초에 제작된 그대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동명왕상의 표정과 외형이 교토의 도지 절에서 소장하고 있는 불상과 매우 비슷하다는 점에서 미루어 볼 때, 도지 절의 불상을 모델로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839년에 제작된 도지 절의 ‘부동명왕’은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이쇼인 절의 부동명왕이 원래는 교토의 닌나지 절에 있었다는 사실도 이 같은 설을 뒷받침합니다. 부동명왕상은 1920년에야 다이쇼인 절로 이전되었으며, 미젠 산의 다이니치도(大日堂)에 모셔진 후, 레이호칸 박물관에서 소장하며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